



주안에 종합사회복지관 “장미공방의 새로운 도전”



지난 5월, 주안에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성인 발달·지적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장미공방>을 개소했습니다. 장미공방 이용자들은 지난 5개월 동안 장미공방에서 공예, 음악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기초학습, 일상생활훈련을 함께 하며 서로 많이 친해지고 장미공방 생활에도 점차 적응을 해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었지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장미공방을 가기 위해 준비하며 갈 곳이 있다는 설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미공방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 중 특히 이용자들의 섬세함과 꼼꼼함이 빛을 발하는 분야는 공예활동입니다. 간단한 클

레이공예부터 화려하고 복잡한 냅킨공예까지 점차 실력을 쌓아가던 중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장미공방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한복 방향제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날부터 장미공방 이용자들은 매일 모여 한복 방향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발도 잘 맞지 않고 속도도 영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져 능숙하게 재단된 한복 천을 오리고, 붙이며 하나하나 방향제를 완성해나갔습니다. 판매를 앞둔 전날, 혹시 불량품이 있지 않을까 꼼꼼히 검수도 하고 포장도 한 후 판매하러 나가서 해야 할 말과 행동들을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9월 27일, 드디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가지고 판매를 나섰습니다. 연습을 계속했었지만 막상 모르는 사람들 앞에 서니 이용자들의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도 잠시, 연습했던 대로 해보자는 사회복지사의 말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첫 손님에게 방향제 판매를 성공한 후 이용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장미공방의

한복 방향제에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용자들은 첫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함께 식사도 하며 수고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미공방은 성인 발달·지적장애인의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고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이용자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장미공방 이용접수 및 문의 : 주안에종합사회복지관 032-513-1998)



장미공방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안내

장미공방에서 진행되는 활동 중 직접 커피를 내리고, 음료를 만들어보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를 좋게 봐주신 후원자 한 분께서 커피머신을 후원해주셨고 바리스타의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직업훈련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는 고가의 커피 용품 및 교육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장미공방의 두 번째 도전도 성공할 수 있도록 작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혹은 네이버해피빈에 “주안에종합사회복지관”을 검색해 보세요!

모금함 바로가기

